

출소자의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윤 기 원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출소자의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출소자들 중 전국에 거주하는 276명으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감횟수가 1회인 초범출소자와 2회 이상인 재범 출소자의 수감횟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과 형사사법적 변인(범죄유형, 수감기간)의 빈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 간 심리척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은 초범출소자가 재범출소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감척도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 적합도를 비교 검증한 결과, 연구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연구 모형에 기반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부애착 모형에서는 부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이 이중으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애착 모형에서는 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 출소자, 수감횟수, 부모애착, 공감, 자아탄력성

* 본 연구는 윤기원(2017)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출소자의 부모애착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 서울시 중로구 성균관로 25-2 호 압관 51103호, Tel : 02-760-0558, E-mail : dhlawrence05@gmail.com

최근 국·내외의 연구가, 정치가 및 교정행정 실무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출소자의 재범이다(황의갑, 박선영, 2010; Rocque, Bierie, & MacKenzie, 2010). 재범이란 범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대한민국 교정시설에서 석방 후 사회로 돌아오는 수형자는 매년 2만 5천 명 정도이며, 이 중 5,000여 명 정도는 3년 이내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된다(법무부, 2015). 2014년 대검찰청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형법범죄자의 70.2%가 재범자로 나타났고, 35.5%는 전과 5범 이상의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경찰청 자료에서는 2010년 검거된 강력사범 중 46%가 재범자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중 방화가 68%, 강도 63%, 살인 62%, 강간 46%로 보고되었다. 또한 2012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재범률의 증가로 국민 10명 중 3명이 범죄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위협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렇듯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다각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재범은 출소자의 학력, 최초 수감 나이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형사 사법적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남상철, 박상석, 2011; 신연희, 2007; 허준, 2013; Cottle, Lee, & Heilbrun, 2001; Simourd & Andrews, 1994; Skardhamar & Telle, 2012)가 있었다. 또한 재범률이 높을수록 어린 나이에 범죄에 빠져들었거나,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학업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범 출소자의 학력이 초범 출소자에 비해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고하는 연구(Archwamety & Katsiyannis, 1998; Katsiyannis & Archwamety, 1997; Towberman, 1994)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심리 변인과 수감횟수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

(Loeber & Dishion, 1983; Patterson, 1982)에서는 출소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 관계, 출소자의 자아탄력성 그리고 공감능력이 출소자의 수감횟수와 연관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 맺는 부모와의 애착은, 인간 성장 발달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사회생활을 배우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성격을 이루어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즉 부모는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여 자녀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는 최초의 모델이면서, 자녀의 성격형성을 이루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김재은, 1974). 부모애착은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와 맺게 되는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가 안정된 느낌과 위안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 형성된 부모애착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뢰를 주고 지지를 주는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며 평생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하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약해서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아동의 경우에는 품행에서의 문제와 범죄위험이 높았으며(Loeber & Dishion, 1983; Patterson, 1982), 부모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수감횟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불안정한 애착은 개인의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박지연, 이은희, 2008), 사회에서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관계를 시도하기보다 강압적이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상과 관계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Lyn & Burton, 2004; Marshall, 1989).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 중요 애착 대상임에도, 아버지 애착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중심으로 애착을 이해하면서 어머니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졌기 때문이다(방희정, 2009). 하지만 최근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변화, 이혼의 증가와 같은 가족의 변화로 아버지가 중요한 애착 대상으로 인식되어,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심리적 안녕감 및 개인특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주, 최해림,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애착과 어머니애착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부모애착이 수감횟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부모와의 애착은 출소자의 수감횟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공감과 관련이 있다. 공감은 타인이 느끼고 있는 정서적 상태, 타인의 상황에 대한 관심, 타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서적 반응 체험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면서 타인의 느낌과 경험을 수용적으로 체험하고, 타인이 느끼는 그때의 정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다(Baron-Cohen & Wheelwright, 2004; Davis, 1983). 초기 경험적 연구에서 공감은 타인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공감에 중요성을 두어왔으나(Bryant, 1991; Mead, 1934; Piaget, 1932), 이후 경험적 연구에서는 공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분하였다(Davis, 1994).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공감을 단일차원이 아닌,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Bennett-Levy & Thwaites, 2007; Greenberg & Elliott, 1997). 이러한 공감은 인간의 심리와 인간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변수다. 공감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성향을 높여주며, 대인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성향을 낮춰주고,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타인의 사고와 감정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수단이 된다(이주혜, 조영아, 2014). 또래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지선, 김춘경(2016)은 청소년의 가해행동의 원인이 공감능력의 부족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공감적 이해 수준과 괴롭힘과의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타인 정서에 대한 낮은 이해는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Miller & Eisenberg, 1988),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높인다(Jolliffe & Farrington, 2004). 따라서 수감횟수가 높을수록 폭력적이고 공감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공감능력으로 수감횟수가 예측된다는 연구결과(Jolliffe & Farrington, 2007; Lauterbach & Hosser, 2007; Mulder, Brand, Bullens, & van Marle, 2011)가 있었다. 또한 인간이 아동기부터 맺어온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부모의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정서적 만족감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신뢰감을 형성한다(Vazsonyi & Huang, 2010). 즉,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감반응을 발달시킬 수 있다(김지선, 김춘경, 2016; 문연심, 2004; 임수진, 2012).

또한 공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행위인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다(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4; Kinman & Grant, 2010). 자아탄력성이란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성, 정서적 안정성 등 적응과 관련된 개념이다. 자아탄력성은 좌절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반응하는 유연성과 충동을 통제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은 어떤 외적상황이든 충동을 억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변인이며, 이는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수현, 최해림, 2007). 자아탄력성의 완충 역할은 자아탄력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와 표현 유형 등으로 설명되는데, Klohnen(1996)은 자아탄력성이 낙관주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활동력,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 및 능숙한 자기 표현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대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부적응을 방지한다고 하였다(Cicchetti, Toth, & Lynch, 1995). Garnezy와 Masten(1991)은 위험한 환경 경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거나, 급성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유능한 기능과,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으로 분류하여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을 주목하는데, 자아탄력성과 수감횟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도록 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수감횟수가 적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Camp & Thyer, 1993; Doll & Lyon, 1998; Smith & Monastersky, 1986).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출소자는 범죄의 위험이 있더라도 위험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범죄에 쉽게 빠져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또한 부모애착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높은 자아탄력성을 형성하여,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인다(권지

은, 2003; Kobak & Sceery, 1988; MacDonald, 1992).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출소자들에게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은 출소자의 수감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출소자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각 요인에 대한 관계와 경로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출소자의 개인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으로 규명된 연구가 드물고, 국내에서는 출소자의 수감횟수와 심리적 요인 간 매개효과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초범 출소자와 2번 이상 수감된 출소자의 특성이 다르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Loeber & Stouthamer-Loeber, 1986)과 1번 수감된 출소자를 초범 출소자로, 2번 이상 수감된 출소자를 재범출소자로 정의한 연구들(Kenny, Keogh, Seidler, & Blaszczynski, 2000; Kenny, Keogh, & Seidler, 2001; Lodewijks, de Ruiter, & Doreleijers, 2009; Rasmussen, 1999; Rennie & Dolan, 2010)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1번 수감된 출소자를 초범출소자로, 2번 이상 수감된 출소자를 재범출소자로 정의하여서 초범 출소자와 재범 출소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형사 사법적 변인의 경향성을 알아보고,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의 심리특성(부모애착, 공감,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의 부애착과 모애착이 공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각각 수감횟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매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횟수가 1회인 초범 출소자와 범죄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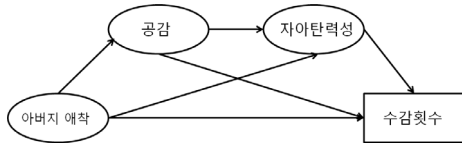


그림 1. 부 애착모형의 연구모형(부분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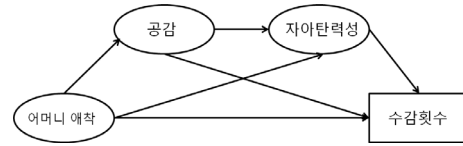


그림 2. 모 애착모형의 연구모형(부분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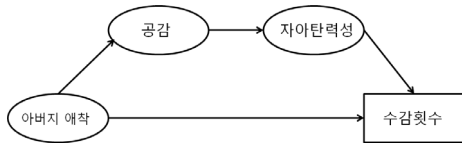


그림 3. 부 애착모형의 경쟁모형1(부분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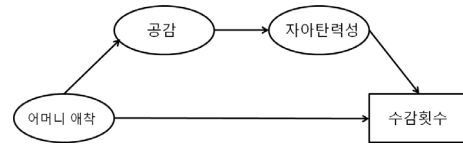


그림 4. 모 애착모형의 경쟁모형1(부분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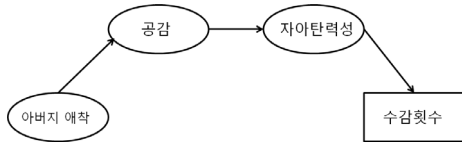


그림 5. 부 애착모형의 경쟁모형2(완전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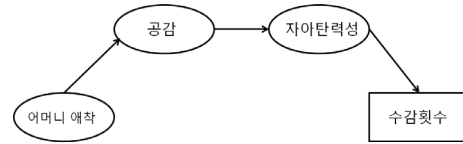


그림 6. 모 애착모형의 경쟁모형2(완전매개)

수가 2회 이상인 재범 출소자간 심리적 특성 (부모애착, 공감,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 2-1. 출소자의 부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2-2. 출소자의 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4~2015년 사이에 이루어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연구용역(‘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을 수행하면서 공단의 숙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에게 설문목적에 대해 안내를 한 후 설문조사에 대해 동의를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숙식지원 지원 서비스 대상자 27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실시 전에 먼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와 전국 15개 지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책임자 및 실무자들에게 설문목적, 설문내용, 설문 실시방법, 연구 종료 후 수집자료 처리 등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였고 추후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설문실시 요청을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응답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등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수반

되는 연구윤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측정도구

실태문항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학력, 취업, 수감횟수, 범죄유형 등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형사사법적 변인을 조사하였다. 수감횟수의 경우 수감횟수가 1번인 경우 초범출소자로 분류하고, 수감횟수가 2회 이상인 출소자를 재범출소자로 분류하였다.

부모 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Raja, McGee와 Stanton(1992)이 개정된 IPPA-개정본(IPPA-R)을 김수희(2009)가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애착의 원척도는 본래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김수희(2009)가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총 12문항(부모 각각 12문항씩)이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김수희(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각 부 .84, 모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각 부 .87, 모 .88로 나타났다.

공감척도

본 연구에서는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이 개발하고 Lawrence, Shaw, Baker, Baron-Cohen과 David(2004)가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공감지수(Empathy Quotient; EQ)척도를 허재홍, 이찬중(2010)이 번안한 K-EQ(Korean Empathy Quotient)를 출소자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적기술'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17문항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허재홍, 이찬중(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인지공감 .89, 정서공감 .74, 사회적기술 .78, 전체 .84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1962)에 의해 고안되고 개념화된 척도였으나, 100개의 목록을 사용하여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Klohnen(1996)은 최종적으로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Klohnen(1996)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것을 박현진(1996)이 번안하고 김인경(2012)이 수정한 척도를, 본 연구 의도에 맞게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자아탄력성 척도는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측정하는 자신감,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과 관련된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주의인 낙관적 태도,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력을 측정하는 분노조절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 대한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부

정적 진술문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자신감 .83, 대인관계 효율성 .87, 낙관적 태도 .75, 분노조절 .72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 전체는 .93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출소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형사사법적 특성과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에 따른 심리특성(부모애착, 자아탄력성, 공감)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감횟수를 수감횟수가 1회인 초범출소자와 수감횟수가 2회 이상인 재범출소자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간 심리특성(부모애착, 자아탄력성, 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SPSS 21.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애착, 공감, 자아탄력성, 수감횟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출소자의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 하였다. 종속변수인 수감횟수는 출소자가 보고한 수감횟수를 사용하였으며, 수감횟수는 1회부터 11회 이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 부합

치(Tucker-Lewis Index; TLI),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홍세희(2000)의 연구에서는 RMSEA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하며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모형으로 본다. 다음으로 부모애착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수감횟수에 이르는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Shrout & Bloger, 2002). 부트스트랩 절차는 모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400$)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 및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공감척도를 제외한 부, 모 애착척도를 두 개의 관측변수(문항꾸러미)로 합산하여 묶었다. 이는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이용함으로써 개별문항이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단점을 줄이고, 추정할 모수(parameter)의 수를 줄이고, 개별 문항의 특성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단점을 줄이고 적합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때, 문항 꾸러미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같은 수준에서 반영할 때 꾸러미 효과가 최대화된다는 Russel 등(1998)의 주장에 근거하여, 각 척도의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묶었다. 이를 위해, 각 척도 별로 요인을 1개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매겼다. 잠재변수에 대한 각 꾸러미의 평균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높은 부하량을 지

닌 문항과 가장 낮은 요인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로 묶어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공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수감횟수와 관계가 있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선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내재모형(nested model)로서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부, 모 애착이 공감과 자아탄력성을 부분이중매개 하여 수감횟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모형을 가정하였다. 즉, 부, 모 애착이 높을수록 공감이 높아지고 공감은 자아탄력성을 높여 수감횟수의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반영하는 부분매개모형을 가정하였다. 연구모형과 비교할 경쟁모형1은 연구모형을 기본으로 공감에서 수감횟수로 가는 경로와,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한 부분매개모형이다. 또한 연구모형과 비교할 경쟁모형2는 경쟁모형1을 기본으로 부, 모 애착이 수감횟수로 직접 가는 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 모형이다.

결 과

출소자의 수감횟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형사사법적 변인의 빈도분석

출소자의 수감횟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형사사법적 변인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수감횟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성별은 초범출소자는 남성 75명(100%)이었으며, 재범출소자는 남성 198명(99.5%), 여성 1명(0.5%)이었다. 연령에서 초범출소자는 40~49세 25명(34.7%), 30~39세 14명(19.4%), 50~59

세 14명(19.4%)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범출소자는 40~49세 64명(32%), 50~59세(26.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에서 초범출소자는 미혼 33명(45.8%), 이혼 21명(29.2%) 순으로 나타났고, 재범출소자는 미혼 106명(53.8%), 이혼 62명(31.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 초범출소자는 고등학교 졸업 28명(37.3%), 대학교 졸업 13명(1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범출소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67명(33.5%), 중학교 졸업 29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수감횟수에 따른 범죄유형에서 초범출소자는 성폭력 14명(18.9%), 사기 12명(16.2%) 순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나타났으며, 재범출소자는 절도 76명(37.8%), 폭력 47명(23.4%) 순으로 나타났다. 수감기간에서 초범출소자는 1년 미만 29명(38.7%), 1~2년 20명(2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범출소자는 2~5년 57명(28.4%), 5~10년 45명(22.4%) 순으로 나타났다.

수감횟수에 따른 심리척도의 차이

수감횟수에 따른 심리척도(부모애착, 공감, 자아탄력성)의 통계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애착 척도에서는 아버지애착($t=2.911, p<.01$), 어머니애착($t=4.931, p<.001$)에서 초범출소자가 재범출소자에 비해서 부모와의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척도에서는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간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t=2.816, p<.01$) 척도에서는 초범출소자가 재범출소자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출소자의 수감횟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형사사법적 변인의 빈도

변인		초범출소자 (%)	재범출소자 (%)	전체(%)	변인	초범출소자 (%)	재범출소자 (%)	전체(%)	
성 별	남	75(100.0)	198(99.5)	273(99.6)	기혼	10(13.9)	9(4.6)	19(7.1)	
	여	0(0.0)	1(0.5)	1(0.4)	이혼	21(29.2)	62(31.5)	83(30.9)	
연 령	20세~29세	9(12.5)	28(14.0)	37(13.6)	결 혼 상 태	별거	4(5.6)	8(4.1)	12(4.5)
	30세~39세	14(19.4)	38(19.0)	52(19.1)		미혼	33(45.8)	106(53.8)	139(51.7)
	40세~49세	25(34.7)	64(32.0)	89(32.7)		동거	0(0.0)	1(0.5)	1(0.4)
	50세~59세	14(19.4)	53(26.5)	67(24.6)		사별	3(4.2)	6(3.0)	9(3.3)
	60세~69세	8(11.1)	14(7.0)	22(8.1)		기타	1(1.4)	5(2.5)	6(2.2)
	70대 이상	2(2.8)	3(1.5)	5(1.8)		무학	0(0.0)	6(3.0)	6(2.2)
법 죄 유 형	강도	4(5.4)	14(7.0)	18(6.5)	학 력	초등학교 중퇴	0(0.0)	7(3.5)	7(2.5)
	살인	5(6.8)	5(2.5)	10(3.6)		초등학교 졸업	3(4.0)	15(7.5)	18(6.5)
	사기	12(16.2)	16(8.0)	28(10.2)		중학교 중퇴	3(4.0)	21(10.5)	24(8.7)
	폭력	7(9.5)	47(23.4)	54(19.6)		중학교 졸업	10(13.3)	29(14.5)	39(14.2)
	절도	5(6.8)	76(37.8)	81(29.5)		고등학교 중퇴	8(10.7)	24(12.0)	32(11.6)
	성폭력	14(18.9)	10(5.0)	24(8.7)		고등학교 졸업	28(37.3)	67(33.5)	95(34.5)
	경제 사범	11(14.9)	9(4.5)	20(7.3)		(전문)대학교 중퇴	7(9.3)	15(7.5)	22(8.0)
	기타	16(21.6)	24(11.9)	40(14.5)		(전문)대학교 졸업	13(17.3)	15(7.5)	28(10.2)
수 감 기 간	1년 미만	29(38.7)	34(16.9)	63(22.8)	대학원 이상	3(4.0)	1(0.5)	4(1.5)	
	1~2년	20(26.7)	38(18.9)	58(21.0)					
	2~5년	17(22.7)	57(28.4)	74(26.8)					
	5~10년	3(4.0)	45(22.4)	48(17.4)					
	10년 이상	6(8.0)	27(13.4)	33(12.0)					

표 2. 재범여부에 따른 심리척도의 차이

			N	M	SD	t
부모 애착	아버지애착	초범출소자	75	33.96	7.543	2.911**
		재범출소자	201	31.30	6.422	
	어머니애착	초범출소자	75	36.71	5.925	4.931**
		재범출소자	201	32.29	6.863	
공감		초범출소자	75	58.12	7.966	1.612
		재범출소자	201	56.52	7.071	
자아탄력성		초범출소자	75	98.85	16.106	2.816**
		재범출소자	201	92.65	16.337	

** $p < .01$, *** $p < .001$

심리변인과 수감횟수 간 상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심리변인(아버지에착, 어머니에착, 공감, 자아탄력성)과 수감횟수의 경향성과 정규성을 검증하고자 전체 대상자와 남성과 여성의 각 변인들에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고, 심리변인(부모애착, 공감, 자아탄력성)과 수감횟수 간 상관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적절한 수치로 나타나서, 정규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애착과 수감횟수 간 관계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수감횟수와

공감 간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감횟수와 자아탄력성에서는 대인관계를 제외한 자신감, 낙관, 분노조절에서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애착 모델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 값이 101.22($df=30, p=.000$), CFI와 TLI는 각각 .936, .903이며, RMSEA는 .093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표 3. 심리변인과 수감횟수 간 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아버지애착1	1											
2. 아버지애착2	.871**	1										
3. 어머니애착1	.755**	.699**	1									
4. 어머니애착2	.688**	.713**	.902**	1								
5. 정서공감	.167**	.166**	.147*	.106	1							
6. 인지공감	.070	.085	.095	.107	.283**	1						
7. 사회적기술	.107	.063	.151*	.114	.137*	.020	1					
8. 자신감	.196**	.174**	.269**	.255**	.092	.079	.360**	1				
9. 대인관계 효율성	.091	.107	.184**	.215**	-.028	.100	.241**	.734**	1			
10. 낙관적 태도	.313**	.280**	.373**	.377**	.062	.037	.359**	.768**	.540**	1		
11. 분노조절	.208**	.188**	.183**	.159**	.069	-.106	.250**	.607**	.379**	.579**	1	
12. 수감횟수	-.163**	-.137*	-.279**	-.269**	-.042	-.105	-.098	-.156**	-.042	-.140*	-.141*	1
M	7.51	7.17	7.93	7.61	3.73	3.28	3.44	29.29	25.43	32.68	6.94	2.71
SD	2.31	2.15	2.40	2.30	0.77	0.57	0.76	5.77	5.81	5.70	1.85	1.44
왜도	-0.42	-0.30	-0.51	-0.37	-0.32	0.00	-0.19	-0.07	0.16	0.27	-0.28	0.34
첨도	-0.35	-0.37	-0.26	-0.28	-0.09	0.32	-0.02	0.41	-0.06	0.33	-0.38	-1.20

* $p < .01$, ** $p < .001$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측정모형(부애착)	101.22	30	.000	.093	.936	.903
측정모형(모애착)	109.74	30	.000	.098	.934	.901

있어,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애착 모델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 값이 109.74(df=30, $p=.000$), CFI와 TLI는 각각 .934, .901이며, RMSEA는 .098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어,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 연구모

형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로와 공감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로로 경쟁모형1을 구성하였고, 부/모애착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로로 경쟁모형2를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TLI,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10이하가 되는지 평가하였다. 부애착 모델에서는 연구모형[$\chi^2(31, N=267)=101.26, p=.000, CFI=.936, TLI=.908, RMSEA=.091(90\% \text{ 신뢰구간}=.071-.111)$], 경쟁모형

표 5.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아버지 애착 모형	$\beta(B)$	S.E.	t	CR	AVE	어머니 애착 모형	$\beta(B)$	S.E.	t	CR	AVE
아버지애착				.972	.946	어머니애착				.982	.964
아버지 애착1	.983(1.000)***					어머니 애착1	.977(1.000)***				
아버지 애착2	.886(.838)***	.099	8.442			어머니 애착2	.923(.908)***	.067	13.629		
공감				.897	.788	공감				.915	.813
인지공감	.500(1.000)***					인지공감	.554(1.000)***				
정서공감	.783(.543)*	.218	2.484			정서공감	.699(.436)*	.170	2.560		
사회적기술	.161(.043)*	.021	2.085			사회적기술	.174(.042)*	.020	2.089		
자아탄력성				.989	.958	자아탄력성				.989	.957
자신감	.990(1.000)***					자신감	.985(1.000)***				
대인관계 효율성	.738(.751)***	.048	15.510			대인관계 효율성	.740(.756)***	.049	15.572		
낙관적 태도	.778(.776)***	.046	16.924			낙관적 태도	.782(.785)***	.046	17.097		
분노조절	.615(.200)***	.017	11.856			분노조절	.618(.202)***	.017	11.920		

* $p < .05$, *** $p < .001$

1[$\chi^2(33, N=267)=102.39, p=.000, CFI=.937, TLI=.914, RMSEA=.087(90\% \text{ 신뢰구간}=.069-.107)$]. 경쟁모형2[$\chi^2(34, N=267)=107.48, p=.000, CFI=.933, TLI=.912, RMSEA=.089(90\% \text{ 신뢰구간}=.070-.108)$] 표 5에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통해서 부애착 모형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chi^2(2)=1.13$)과 경쟁모형2($\chi^2(3)=6.22$)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 각 변인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1과 경쟁모형2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elta\chi^2=5.089(df=1,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유도가 더 적은 경쟁모형1이 연구모형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모애착 모델에서는 연구모형[$\chi^2(30, N=267)=109.74, p=.000, CFI=.934, TLI=.901, RMSEA=.096(90\% \text{ 신뢰구간}=.078-.116)$]. 경쟁모형1[$\chi^2(33, N=267)=111.10, p=.000, CFI=.934, TLI=.908, RMSEA=.095(90\% \text{ 신뢰구간}=.076-.114)$]. 경쟁모형2[$\chi^2(32, N=267)=128.70, p=.000, CFI=.921, TLI=.892, RMSEA=.103(90\% \text{ 신뢰구간}=.084-$

.122)] 표 5에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통해서 모애착 모형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chi^2(2)=1.26$)과 경쟁모형2($\chi^2(3)=18.96$)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 각 변인간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1과 경쟁모형2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elta\chi^2=17.6(df=1,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유도가 더 적은 경쟁모형1이 연구모형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7과 같다. 부애착 모델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아버지애착이 공감으로 가는 경로($\beta=.302, p<.05$), 공감이 자아탄력성으로 가는 경로($\beta=.646, p<.01$)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이 수감횟수로 가는 경로($\beta=-.148, p<.05$), 아버지애착이 수감횟수로 가는 경로($\beta=-.140, p<.05$)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애착 모델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어머니애착이 공감으로 가는 경로($\beta=.399, p<.05$), 공감이 자아탄력성으로 가는 경로($\beta=.693, p<.01$)는 정

표 6.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χ^2	df	p	RMSEA[90%신뢰구간]	CFI	TLI
부애착 모델	연구모형	101.26	31	.000	.091[.071-.111]	.936	.908
	경쟁모형1	102.39	33	.000	.087[.069-.107]	.937	.914
	경쟁모형2	107.48	34	.000	.089[.070-.108]	.933	.912
모애착 모델	연구모형	109.74	30	.000	.098[.078-.116]	.934	.901
	경쟁모형1	111.10	32	.000	.095[.076-.114]	.934	.908
	경쟁모형2	128.70	33	.000	.103[.084-.122]	.921	.892

표 7.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부애착 모델	$\beta(B)$	S.E.	t
아버지애착→공감	.302(.030)*	.013	2.358
공감→자아탄력성	.646(19.428)**	7.448	2.609
자아탄력성→수감횟수	-.148(-.033)*	.015	-2.116
아버지애착→수감횟수	-.140(-.105)*	.046	-2.266
모애착 모델	$\beta(B)$	S.E.	t
어머니애착→공감	.399(.032)*	.013	2.444
공감→자아탄력성	.693(23.117)*	9.160	2.524
자아탄력성→수감횟수	-.089(-.021)	.016	-1.340
어머니애착→수감횟수	-.283(-.179)***	.042	-4.268

* $p < .05$, ** $p < .01$, *** $p < .001$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어머니애착이 수감횟수로 가는 경로($\beta = -.283, p < .05$)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수감횟수로 가는 경로($\beta = -.089, p > .05$)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아버지애착 모형과 어머니애착 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8과 같다. 아버지애착 모형에서, 아버지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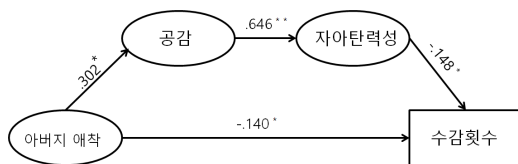


그림 7. 아버지 애착모형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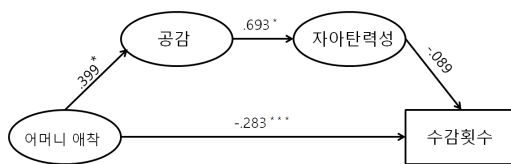


그림 8. 어머니 애착모형 경로계수

표 8. 매개모형 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아버지애착 → 공감 → 자아탄력성	.592	.076	.127	1.068
공감 → 자아탄력성 → 수감횟수	-.637	.049	-5.239	-.073
아버지애착 → 공감 → 자아탄력성 → 수감횟수	-.019	.016	-.052	-.003
어머니애착 → 공감 → 자아탄력성	.743	.084	.183	1.152

때 공감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경로계수는 .592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0.127~1.068)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아버지 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공감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경로계수는 -.637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5.239~-0.073)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공감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아버지애착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칠 때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경로계수는 -.019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0.052~-0.003)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아버지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애착 모형에서 어머니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때 공감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경로계수는 .743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사이(0.183~1.152)에 '0'이 존재하지 않아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어머니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출소자의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와 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수감횟수가 1회인

초범 출소자와 수감횟수가 2회 이상인 재범 출소자로 구분하여 초범 출소자와 재범 출소자 간 부모애착, 공감,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애착, 어머니애착, 자아탄력성에서 초범출소자가 재범출소자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감에서는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 간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부애착모델과 모애착모델을 설정 후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와 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애착 모형에서는 아버지애착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칠 때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어머니애착 모형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의 심리변인(부모애착, 공감, 자아탄력성)의 집단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부애착과 모애착에서 초범출소자가 재범출소자보다 더 높은 애착 점수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정서적, 사회적 욕구가 부모를 통해서 충족되지 않을 경우 비행이 유발되고 (Katsiyannis, Zhang, Barrett, & Flaska, 2004; Lodewijks et al., 2009), 출소자들에게 제공하는 부모의 정서적 자원이 수감횟수를 줄이는 중요요인이라는 기존 선행연구(Agnew, 2005; Glaser, 1964)를 입증한다. 본 연구에서 공감은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간 공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선행연구 결과(Hepper, Hart, Meek, Cisek, & Sedikides, 2014)를 입증하며, 초범출소자와 재범출소자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초범출소자가 재범출소

자의 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인지하고, 정서적 교감을 한다는 선행연구(Forth & Flight, 2007)의 결과와는 상충된다. 공감을 확인함에 있어 각 연구자마다 EQ 혹은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등 다른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 출소자를 수감횟수가 2회 이상인 출소자로 정의하여 살펴보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초범 출소자와 수감횟수가 2회 이상인 출소자를 같은 그룹으로 정의하고 수감횟수가 3회 이상인 출소자를 재범 출소자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도출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초범출소자가 재범출소자보다 더 높은 자아탄력성 점수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범 출소자의 높은 자아탄력성이 범죄행동을 보호해준다는 선행연구 결과(Fougere, Daffern, & Thomas, 2015)를 입증한다.

둘째, 부, 모애착과 수감횟수와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부 애착과 모 애착이 높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애착이 높을수록 타인이 느끼고 있는 정서적 상태와 타인의 상황에 대한 관심, 타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서적 반응인 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김지선, 김춘경, 2016; 문연심, 2004; 임수진, 2012)를 입증한다. 또한, 부, 모애착은 공감의 매개변인을 통해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 모 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공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기존연구 결과(Kinman & Grant, 2010)를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 모애착은 수감횟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이 높을수록 수감횟수가 낮아진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Benda, 1997; Benda & Whiteside, 1996; Simons, Whitbeck, Conger, & Conger, 1991)과 일치한다. 또한 부 애착 모형에서는 이중매개 변인인 공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서도 수감횟수에 영향을 주었다. 즉, 부 애착이 높은 사람은 공감이 증가하고, 이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감횟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부 애착이 높은 경우 타인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가 증가하여서 재범위험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모 애착 모형에서는 모 애착이 높을수록 공감이 증가하고,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감횟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Forth & Flight, 2007)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의 특이점은 부 애착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모형과 모 애착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모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부 애착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칠 때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모 애착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칠 때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모 애착이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하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가 상담 실재에 시사하는 바는 출소자의 개입에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개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재범을 저지르는 출소자들의 경우에는 공감능력이 낮아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낮으며, 자아탄력성이 낮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Katsiyannis et al., 2004; Lodewijks et al., 2009). 이를 고려하여 상담 장면에서는 출소자에게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출소자에게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인 명상과 심호흡을 교육함으로써, 폭력적 반응보다 유연한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소자에게 가족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들에게 각인된 가족의 역동성을 치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제공을 받고 있는 제한된 대상을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출소자 집단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표본의 제한점이 있다. 둘째, 대상자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인, 형사사법적 변인 및 심리척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특성을 응답할 때 축소 혹은 확대하여 기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출소자들의 수감횟수에는 다양한 보호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 분노 표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수감횟수와 관련된 변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공감과 자

아탄력성 이외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 (2012). 음악치료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41-61.
- 김재은 (1974). 한국 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 김춘경 (2016). 초기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관계 분석-부모애착, 부모감독, 공감,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3), 399-418.
- 남상철, 박상석 (2011). 수형자의 재범요인 연구. 교정연구, 50, 115-139.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박지연, 이은희 (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69-389.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희정 (2009).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

- (parenting) 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67-91.
- 법무부 (2015). *법무연감*. 서울: 법무부.
- 신연희 (2007). 청소년기 시설입소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4, 131-157.
-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4). 아동의 공감능력이 언어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탄력성과 폭력성향 친구접촉의 매개역할. *청소년학연구*, 21(10), 529-553.
- 이수현, 최해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참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 이주혜, 조영아 (201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579-594.
- 임수진 (2012).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성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47-361.
-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허재홍, 이찬중 (2010). 공감지수 (EQ) 척도의 심리측정 속성. *인문과학연구*, 24, 183-200.
- 허준 (2013). 소년범죄자의 부모, 학교애착 및 비행친구가 재범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219-23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의갑, 박선영 (2010).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6(2), 311-342.
- Agnew, R. (2005). *Why do criminals offend?: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Los Angeles: Roxbury.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 Benda, B. B. (1997). An examination of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different forms of delinquency withi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2), 163-186.
- Benda, B. B., & Whiteside, L. (1996). Testing an integrated model of delinquency using LISREL.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1(2), 1-32.
- Bennett-Levy, J., & Thwaites, R. (2007). Self and self-reflection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 conceptual map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training, supervision and self-supervision of interpersonal skills. In P. Gilbert & R. Leahy (Ed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the Cognitive Behavioural Therapies* (pp. 255 - 281). London: Routledge.
- Block, H. D. (1962). The perceptron: A model for brain functioning. *Reviews of Modern Physics*, 34(1), 123 - 135.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yant, D. A. (1991). Cyanobacterial phycobilisomes: Progress toward complete structural and functional analysis via molecular genetics. In Bogorad, L. & Vasil, I. K. (Eds.), *Cell culture and somatic cell genetics of plants, Vol. 7B, The photosynthesis apparatus: molecular biology and operation* (pp. 257 - 300), San Diego: Academic Press.
- Cicchetti, D., Toth, S. L., & Lynch, M. (1995). *Bowlby's dream comes full circle. In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1-75). Springer US.
- Camp, B. H., & Thyer, B. A. (1993). Treatment of adolescent sex offenders: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7, 191-206.
- Cottle, C. C., Lee, R. J., & Heilbrun, K. (2001). The prediction of criminal recidivism in juveniles a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3), 367-394.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 - 126.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Westview Press.
- Doll, B., & Lyon, M. A. (1998). Risk and resilience: Implications for the delivery of educational and mental health services in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27(3), 348-363.
- Forth, A. E., & Flight, J. I. (2007). Instrumentally violent youth: The roles of psychopathic traits, empathy, and attach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6), 739-751.
- Fougere, A., Daffern, M., & Thomas, S. (2015). Does resilience predict recidivism in young offender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2(2), 198-212.
- Garmezy, N., & Masten, A. S. (1991). The protective role of competence indicators in children at risk. In E. M. Cummings, A. L. Greene & K. H. Karraker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pp. 151-17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laser, D. (1964). *The Effectiveness of a Prison and Parole System*. New York: Bobbs-Merrill.
- Greenberg, L. S., & Eliot, R. (1997). Varieties of empathic responding. In A. C. Bohart & L. S. Greenberg (Eds.), *In Empathy Reconsider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pp. 167-8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pper, E. G., Hart, C. M., Meek, R., Cisek, S., & Sedikides, C. (2014). Narcissism and empathy in young offenders and non offender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8(2), 201-210.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4). Empathy and offend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5), 441-476.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7).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empathy and self-reported offending.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2(2), 265-286.
- Katsiyannis, A., Zhang, D., Barrett, D. E., & Flaska, T. (2004). Background and

- psychosocial variables associated with recidivism among adolescent males a 3-year investiga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2(1), 23-29.
- Kenny, D. T., Keogh, T., & Seidler, K. (2001). Predictors of recidivism in Australian juvenile sex offenders: Implications for treatment.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2), 131-148.
- Kenny, D. T., Keogh, T., Seidler, K., & Blaszczynski, A. (2000). Offenc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ustralian juvenile sex offender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7(2), 212-226.
- Kinman, G., & Grant, L. (2010). Exploring stress resilience in trainee social workers: The role of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i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1(2), 261-275.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uterbach, O., & Hossler, D. (2007). Assessing empathy in prisoners - A shortened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6(2), 91-101.
- Lawrence, E. J., Shaw, P., Baker, D., Baron-Cohen, S., & David, A. S. (2004). Measuring empath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pathy Quotient. *Psychological Medicine*, 34(5), 911-920.
- Lodewijks, H. P., de Ruiter, C., & Doreleijers, T. A. (2009). The impact of protective factors in desistance from violent reoffending: A study in three samples of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3), 568-587.
- Loeber, R., & Dishion, T.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1), 68-99.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Crime and Justice*, 7, 29-149.
- Lyn, T. S., & Burton, D. L. (2004). Adult attachment and sexual offender statu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2), 150-159.
- MacDonald, K. (1992). Warmth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An evolutiona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3(4), 753-773.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Marshall, W. L. (1989). Intimacy, loneliness and sexual offen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5), 491-504.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Vol. 11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ulder, E., Brand, E., Bullens, R., & van Marle, H. (2011). Risk factors for overall recidivism and severity of recidivism in serious juvenile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5(1), 118-135.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24-344.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Vol. 3), OR: Castalia Publishing Company.
- Piaget, J. (1932). *The moral development of the child*. London: Kegan Paul.
- Rasmussen, L. A. (1999). Factors related to recidivism among juvenile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1), 69-85.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ennie, C. E., & Dolan, M. C. (2010). The significanc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assessment of risk.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0(1), 8-22.
- Rocque, M., Bierie, D. M., & MacKenzie, D. L. (2010). Social bonds and change during incarceration: Testing a missing link in the reentr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5(5), 816-838.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Conger, K. J. (1991). Parenting factors, social skills, and value commitments as precursors to school failure, involvement with devia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6), 645-664.
- Skardhamar, T., & Telle, K. (2012). Post-release employment and recidivism in Norwa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8(4), 629-649.
- Smith, W. R., & Monastersky, C. (1986). Assessing juvenile sexual offenders' risk for reoffend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3(2), 115-140.
- Towberman, D. B. (1994). Psychosocial antecedents of chronic delinquency.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21(1-2), 151-164.
- Vazsonyi, A. T., & Huang, L. (2010). Where self-control comes from: On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and its relationship to deviance over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46(1), 245-257.

원 고 접 수 일 : 2016. 1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2. 27
게 재 결 정 일 : 2017. 05. 11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Recidivism: Double-Mediating Effects of Empathy and Ego-Resilience in Ex-Offenders

Gi Won Yoon

Dong Hun Lee

Sun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and recidiv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ego-resilience in ex-offenders. Participants included 276 ex-offenders receiving services via a Korean Rehabilitation agency separated into two groups: first offense ex-offenders and ex-offenders with two or more offenses. First, to explore the differences between parental attachment, empathy, ego-resilience in the two groups in order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parent attachment, empath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compare the fit of the research and alternative models, and the research model was determined to be the best model. Results showed that paternal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recidivism and an indirect, mediating effect on empathy and ego-resilience. Maternal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recidivism but not effect, directly or indirectly, empathy and ego-resilience. Limitations, future research and counseling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ex-offender, recidivism, parent attachment, empathy, ego-resilience*